

정답

1	①	2	③	3	④	4	④	5	①
6	①	7	①	8	①	9	③	10	③
11	③	12	②	13	②	14	④	15	②
16	①	17	⑤						

[1~5] 박목월 '나무', 신경림 '나목', 최두석 '성애꽃'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가)에서는 나무라는 대상에 대해 '추위 보였다.', '외로워 보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나)에서는 나무라는 대상에 대해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인격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권의T의 평가원 코드〉  
자연물이나 사물에 인격을 부여한다는 표현은 평가원이 최근에는 잘 쓰지 않지만, 과거(11학년도 6평 / 13학년도 6평)에는 분명히 나온 개념이다. 최근에는 유사한 개념인 의인화가 더 많이 나온다.

- ② (가)와 (다)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적 대상의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다.  
⇒ (가)에서는 유성에서 조치원, 조치원에서 공주, 공주에서 온양, 온양에서 서울로 공간이 이동하며, 시적대상인 나무의 이미지가, 수도승, 어설픈 과객, 파수병의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다)에서는 성애꽃이라는 대상을 아름다운 대상, 한숨, 정열의 숨결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이미지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③ (나)와 (다)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나)와 (다)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확인할 수 없다.
- ④ (가), (나), (다) 모두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가), (나), (다) 모두 시상의 반전을 확인할 수 없다.

〈임권의T의 평가원 코드〉  
반전은 최근 운문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개념이다. 산문에서는 최근 들어 분위기나 사건의 반전이라는 선지가 제법 등장했지만, 답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아마 시상의 반전이 있는 시는 제법 있겠지만, 명확히 수능에 출제할 수 있게끔 '시상의 반전에 대한 표지'가 있는 시는 많지 않아서 답 선지로 잘 안 나왔던 거 같다. 또한 2009학년도 수능에 등장한 '님의 침묵'은 그 표지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상의 반전으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다.

- ⑤ (가), (나), (다) 모두 유사 어구의 점층적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심화시키고 있다.  
⇒ (가)의 1~3연에서 유사 어구의 점층적 반복을 확인할 수 있지만, (나)와 (다)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임권의T의 평가원 코드〉  
점층법은 예로부터 평가원이 애용하는 선지인데, 잘 생각해보면 '의미가 확장되는 것'이기에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평가원은 점층법이 답이 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 꺾쇠를 주면서 물어보곤 했다.

2. (가)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후 논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와 <보기>에는 공통적으로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가는 회귀의 여정이 나타나 있어.  
⇒ (가)는 시에서는 유성부터 나오지만, '서울로 돌아오자'라는 표현에서, <보기>는 마지막 문장에서 '동경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에서 회귀의 여정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그리고 그 여정은 결과적으로 탐색의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적이어야.  
⇒ (가)는 여정 중에 만난 나무를 보며 자아를 탐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보기>는 조선으로 돌아오자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조선의 현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또한 (가)와 <보기>의 여정에는 모두 상황과 의지가 대립하는 양상이 나타나 있어.  
⇒ <보기>의 인물인 '이인화'가 조선의 현실과 조선인의 비굴함, 허례 의식에 환멸을 느끼는 것을 상황과 의지가 대립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가)에서는 상황과 의지가 대립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치 못하다.

- ④ 하지만 (가)는 화자의 내면 인식에, <보기>는 인물의 현실 인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 (가)는 1~3연에서 관찰한 나무를 바탕으로 4연에서 화자의 내면을 인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보기>는 '이인화'가 조선으로 돌아와 조선의 현실을 인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⑤ 그 차이는 (가)에 설정된 화자와 <보기>에 설정된 인물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 (가)의 인물은 나무를 보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모습과 시적 분위기를 보아 다소 진중한 성격의 화자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늙은 나무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점에서 화자의 나이가 고연령대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보기>의 인물은 조선의 현실을 목도하고 분노하는 한편, 조선인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모습에서 다소 감정적인 성격의 화자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설정된 인물이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인물의 나이가 청년층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3. (나)의 내용의 흐름으로 보아 ㉠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 ① 하은 : 나무에 공감하는 존재로서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을 제시하여 자연과 인간의 유대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은 나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존재로 나무에 공감하는 존재로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공감만으로 자연과 인간의 유대감을 강조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적절치 못하다. (길에서 안타까운 사건을 보았고, 슬픔이 끌어올라 온다고 해도, 그 사건 당사자에 대한 공감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유대감이 생기지는 않는다. 같은 이유라고 보면 된다.)
- ② 지선 :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은 '깊은 울음'을 우는 나무의 이미지와 중첩되는 표현으로 화자의 불행한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은 깊은 울음을 우는 나무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불행한 미래를 암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③ 강희 : 나무의 모습에서 이상 실현이 좌절된 자의 모습을 유추하고 이를 동정하는 존재로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을 제시하여 좌절된 이상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표현하고 있어.  
⇒ 한마디로 과잉추론이다. 이상 실현이 좌절된 자의 모습을 유추하여 나무의 깊은 울음에 공감하였다고 하더라도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은 좌절된 이상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표현하는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순함 공감일 뿐, 화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④ 경수 :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슬픔으로 울음을 터뜨리는 존재로, 나무에서 자신의 모습을 엿본 화자라 할 수 있어.  
⇒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은 인간 본연의 슬픔이 끌어올라 우는 존재로, 나무의 깊은 울음에 공감하는 존재이다. 이는 나무에서 자신의 모습을 엿본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⑤ 재호 : '서로 부둥켜안고' 우는 나무와 혼자서 '우는 사람'의 모습을 대비시켜 화자의 고독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은 나무에 공감하는 대상으로 고독감에 초점이 맞추어진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치 못하다.

4. ㉠~㉡ 중, ㉠이 형상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해설) ㉠은 고달픈 삶이므로 고달픈 삶으로 보기 어려운 대상을 선택하면 된다. ㉠은 새벽에 일어나 일을 하러 가기 위해 탑승하는 교통수단이다. 따라서 고달픈 삶을 상징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는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는 모두 시내버스를 탔던 대상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예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은 어제 시내버스를 탔던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가 뻗은 막막한 한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은 고달픈 삶으로 인해 푸석해진 얼굴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반면 ㉤은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들이 뻗은 한숨과 숨결로 만들어진 성에꽃을 지우기 위한 입김이므로 고달픈 삶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5. ㉠과 유사한 발상이 나타나 있는 것은? [1점]

- ㉠은 극한의 상황이 될수록 어떠한 것이 강화된다는 발상이다. 따라서 상황이 심화되며 강화되는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면 되겠다.
- ① 벼는 서로 어우러져 / 기대고 산다. / 햇살 따라워질수록 /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 햇살이 따라워질수록 벼가 깊이 익어 서로를 아낀다는 어구가 ㉠과 유사하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② 혼자는 아니다 /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 나도 아니다. /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 ㉠과 유사한 발상을 발견할 수 없다.

③ 함박눈은 내리는데 갈 길은 먼데 / 무관심을 사랑하는 노렐 부르며 / 눈사람을 기다리는 노렐 부르며 / 이 겨울 밤거리의 눈사람이 되었네

⇒ ㉠과 유사한 발상을 발견할 수 없다.

④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 아아, 마침내, 끝끝내 /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 꽃 피는 나무이다

⇒ 어떠한 것이 강화된다는 발상은 존재하지만, 상황이 심화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과 유사한 발상을 발견할 수 없다.

⑤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 ㉠과 유사한 발상을 발견할 수 없다.

[6~9] 기술

6.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시간 동기화 방식에 비해 로그인 서버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 6문단에서 따르면 시간 동기화 방식은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 비해 입력 시간에 제약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비동기화 방식의 OTP 기술에서는 OTP 발생기의 질의에 사용자가 응답값을 인증 서버에 입력해야 인증에 성공한다.

⇒ 2문단에서 비동기화 방식인 질의 응답 방식에서는 인증 서버의 질의에 대해 OTP 발생기가 생성한 응답값을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인증 서버는 이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적절치 못하다.

③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에서는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없다.

⇒ 1문단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은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는 비밀번호 생성 간격을 짧게 할수록 비밀번호가 바뀌는 횟수가 감소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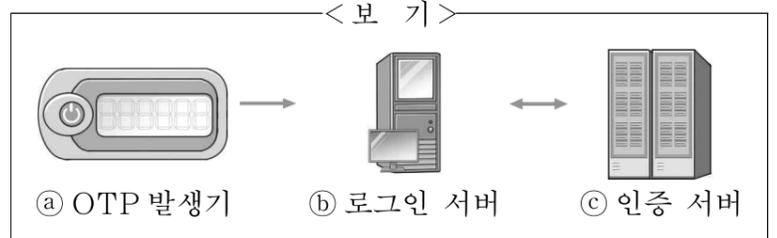
⇒ 4문단에서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는 인증을 시도한 날짜와 시간을 바탕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비밀번호를 생성한다고 한다. 비밀번호 생성 간격을 짧게 하면 비밀번호를 더 자주 바꾸는 것이 되므로 비밀번호가 더 자주 바뀌게 된다. 따라서 적절치 못하다.

⑤ 질의 응답 방식에서 사용자가 OTP 발생기에 입력한 임의의 6자리 수는 응답값과 일치할 것이다.

⇒ 2문단에서 질의 응답 방식은 인증 서버가 6자리 수, 즉 질의

값을 제시하면 사용자는 질의값과 다른 응답값을 생성하여 로그인 서버에 입력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OTP 발생기에 입력한 임의의 6자리 수는 응답값과 다를 것이다.

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 인증에 성공하였다면 사용자가 (a)에서 (b)로 보낸 비밀번호와 (b)에서 생성한 인증값은 같을 것이다.

⇒ 4문단에서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b에서 생성한 인증값'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②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 (a)와 (c) 사이에 시간 오차가 발생하면 (a)에서 생성한 비밀번호로는 인증에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 6문단에서 시간 동기화 방식은 인증 서버와 OTP 발생기 간에 시간 오차가 발생하면 인증에 실패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는 기숫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a)는 비밀번호를, (c)는 인증값을 생성할 것이다.

⇒ 3문단에서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기숫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 (a)로 비밀번호를 생성하기만 하고 인증하지 않는다면 (a)와 (c)의 카운트값이 서로 달라질 것이다.

⇒ 3문단에서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 OTP 발생기에서 비밀번호를 생성하기만 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간에 카운트 값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적절하다.

⑤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 (a)가 생성한 비밀번호로 인증을 받았다면 (c)는 카운트값을 증가시켜 다음번 인증에 반영할 것이다.

⇒ 3문단에서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 OTP 발생기가 생성한 비밀번호와 비교하여 인증에 성공하면 인증서버는 카운트값을 증가시켜서 저장해두고, 다음 인증에 반영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적절하다.

8.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밀번호가 고정되지 않고 새롭게 생성되도록 하기 위해  
⇒ 3문단에서 이벤트 동기화 방식을 OTP 발생기의 기숫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OTP 발생기가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마다 카운트값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매번 카운트값을 달리하여 일회용 비밀번호를 새롭게 생성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 ② 인증 서버의 응답값과 카운트값을 일치시키기 위해  
⇒ 3문단에서 인증 서버는 인증에 성공할 때마다 카운트값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인증 서버의 응답값과 카운트값을 일치되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다.
- ③ 인증에 성공할 때마다 기숫값을 동기화하기 위해  
⇒ 인증에 성공한다고 하여도 기숫값은 동기화되지 않는다.
- ④ 인증에 실패 시 이전 비밀번호를 복원하기 위해  
⇒ 인증에 실패한다고 하여도 이전 비밀번호를 복원하지는 않는다.
- ⑤ OTP 발생기의 질릿값이 갱신되도록 하기 위해  
⇒ 2문단에서 질릿값은 이벤트 동기화 방식이 아니라 질의 응답 방식에 사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치 못하다.

9.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사용자 A와 사용자 B는 모두 각자의 OTP 발생기를 통해 ㉠ 2019년 3월 7일 오전 10:00에 인증을 시도하고, ㉡ 오전 10:30에 인증을 다시 시도하였다. 그리고 ㉢ 다음날 오전 10:30에 다시 인증을 시도하였다.

- ① ㉠에서  $X_n$ 이 노출되더라도  $r$ 는 알아내기가 어렵겠군.  
⇒ 4문단에서 일방향 함수  $f$ 는 역연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함수라고 했으므로  $X_n$ 이 노출되더라도  $r$ 를 알아내기는 어려운 것이다.
- ② ㉠과 ㉡에서 사용자 A의  $r$ 는 서로 다르겠군.  
⇒ 5문단에 따르면  $r$ 은 사용자의 OTP 발생기마다 고유한 기숫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구하는 것인데 ㉠과 ㉡의 인증 시도 시간이 다르므로  $r$ 도 다를 것이다.
- ③ ㉡과 ㉢에서 함수  $f$ 를  $n$ 번 수행한  $X_n$ 은 같겠군.  
⇒ 5문단에 따르면 <보기>는 시간 동기화 방식으로 일회용 비밀

번호를 생성하는 사례를 가정한 것이다. ㉡과 ㉢은 인증 시도 시간이 다르므로 인증 시도 시간과 기숫값을 바탕으로 구하는  $r$ 가 서로 달라진다.  $X_n$ 은  $r$ 에 대해 일방향 함수  $f$ 를  $n$ 회 수행하여 구하는 값이므로  $r$ 이 다르면  $X_n$ 도 달라진다.

- ④ ㉢에서 사용자 A와 사용자 B의 기숫값은 서로 다르겠군.  
⇒ OTP 발생기의 기숫값 해당 금융 기관의 정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신상 정보가 함께 반영된 값이므로 ㉢에서 사용자 A와 사용자 B의 기숫값은 서로 다를 것이다.
- ⑤ ㉠~㉢에서 사용자 B의  $X_{n+1}$ 들은 서로 다르겠군.  
⇒ 같은 사용자라 하더라도 인증 시도 시각이 다르면  $X_{n+1}$ 의 값이 달라진다. 따라서 ㉠~㉢에서 사용자 B의  $X_{n+1}$ 들은 모두 다를 것이다.

[10~13] 작자 미상 '배비장전'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며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② 서술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건을 관찰하고 있다.  
⇒ 고전소설은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된다. 배비장전 역시 그러한데, 서술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건을 관찰한다는 선지가 답이 되려면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적절치 못하다.
- ③ 행동의 묘사와 대화를 통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배비장이 곤두박질하는 모습이나, 방자와 배비장의 대화에서 배비장이 놀림당하고 있는 모습에서 배비장이라는 인물이 희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권의T의 평가원 코드>

뭐 이걸 평가원 코드는 아니지만.. 문학 개념어 하나 제대로 알고 가자. 희화화라는 개념에는 해학이라는 개념과 달리 비판적 어조가 살포시 녹아있다. 해학과 희화화는 둘 다 '웃긴' 것이겠지만, 해학적인 것은 언어유희와 같이 상대방도 웃어넘길 수 있는 재미있는 것이겠지만 / 희화화는 '비웃는 것'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웃어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④ 기지와 재치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인물을 비웃고 있다.  
⇒ 이 소설에서 비웃음당하는 인물은 배비장인데, 배비장은 신분 상승을 꾀하는 인물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치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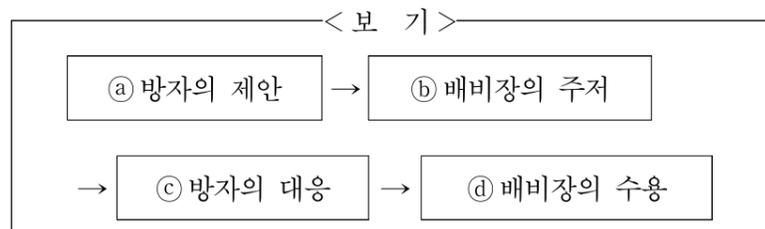
⑤ 사건에 따라 변화하는 인물의 입체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 입체적이란 둘 이상의 것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물의 성격이 변했다고는 볼 수 없다.

—<임권의T의 평가원 코드>—  
사실 인물의 성격이 변했다는 것 역시 특정한 표지가 없으면 나오기 힘든데.. 애초에 그런 소설 자체가 많지 않다. 그래서 아직까지 평가원에서 답 선지로 안 냈다.

11. '배비장'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은? [1점]

- ①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  
⇒ 배비장이 애랑을 만나러 갈 때 방자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에서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제대로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②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고 있다.  
⇒ 애랑의 편지를 받고 삼경(23시~1시)까지 기다리는 모습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③ 겉으로는 상대방을 위하는 척하고 있다.  
⇒ 겉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은 방자이다. 배비장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 ④ 여자에게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다.  
⇒ 애랑을 만나러 가기 위해 의관을 차려입는 모습에서 여자에게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양반의 체통보다는 욕망을 따르고 있다.  
⇒ 양반의 체통을 지킨다면, 절대로 발가벗은 상태로 밖에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발가벗지 않으면 나가지 말라는 방자의 말에 나가기 위해 그대로 따르는 모습에서 체통보다는 욕망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 [A]와 [B]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대화의 구조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양반을 조롱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 방자가 배비장에게 옷을 벗고 개가죽 두루마기에 노퍽거지를 쓰라고 하는 말은 배비장을 조롱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 ② ㉡는 ㉠의 속뜻을 알아차리고 망설이는 것이다.  
⇒ 배비장이 방자가 자신을 조롱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이후에 그 말을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③ ㉢는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상대방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 방자는 주저하는 배비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해 자극하고 있다.
- ④ ㉣는 ㉢의 인물이 예상한 결과이다.  
⇒ 방자는 자신의 말에 배비장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한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⑤ ㉣의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빨리 이루기 위해서이다  
⇒ 배비장은 빨리 애랑을 만나러 가고 싶기 때문에 방자의 제안을 수용한다.

13. [C]의 상황에 어울리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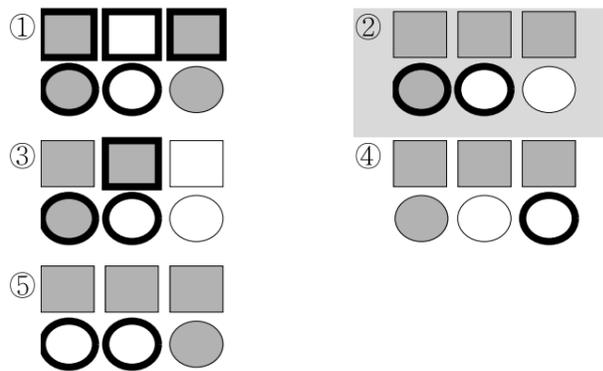
- ① 조삼모사(朝三暮四)  
⇒ 조삼모사는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C]의 상황에 어울리는 성어는 아니다.
- ② 허장성세(虛張聲勢)  
⇒ 허장성세는 헛되이 목소리의 기세(氣勢)만 높인다는 뜻으로, 실력(實力)이 없으면서도 허세(虛勢)로만 떠벌림이라는 의미로 애랑을 만나러 가기 위해 이상한 차림을 한 주제에 현학적인 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허세를 부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C]의 상황에 어울리는 성어라고 할 수 있다.
- ③ 방약무인(傍若無人)  
⇒ 방약무인은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뜻으로, 주위(周圍)에 있는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意識)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行動)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C]의 상황에 어울리는 성어는 아니다.
- ④ 호가호위(狐假虎威)  
⇒ 호가호위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威勢)를 빌려 호기(豪氣)를 부린다」는 뜻으로, 남의 세력(勢力)을 빌어 위세(威勢)를 부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C]의 상황에 어울리는 성어는 아니다.
- ⑤ 아전인수(我田引水)  
⇒ 아전인수는 자기(自己)의 이익(利益)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行動)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C]의 상황에 어울리는 성어는 아니다.

[14~17] 인문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지 오류 현상에 대한 상반된 이론을 설명하며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인지 오류 현상에 대한 상반된 이론이 아닌 다른 견해를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② 인지 오류 이론의 핵심 개념을 정의하며 인지 능력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 인지 오류 이론의 핵심 개념을 각각 정의하고 있지만 인지 능력의 발달 단계는 제시된 바가 없다.
- ③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인지 오류 이론이 다양하게 분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인지 오류 이론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통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양하게 분화되는 과정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 ④ 인지 오류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이론들을 소개하며 인간의 인지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분위기 이론, 심적 모형 이론, 환위, 믿음 편향의 순서로 인지 오류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이론들을 소개한 후, 마지막 문단에서 전통적 관점과 달리 인간이 논리적 사고 중심의 인지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인간의 논리적 사고력에 초점을 맞추어 인지 오류 이론에 영향을 미친 다른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  
⇒ 인지 오류 이론에 영향을 미친 다른 이론은 소개하고 있지 않다.

15. ㉠을 뒷받침하는 심적 모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설) 모든 사각형에 음영이 있으며, 어떤 음영이 있는 도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각형도 뚜렷한 윤곽이 없다. 따라서 <어떤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가 반드시 도출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① <모든 사각형은 음영이 있는 도형이다.>를 충족하지 못한다.
- ③ <모든 사각형은 음영이 있는 도형이다.>를 충족하지 못한다.
- ④ <어떤 음영이 있는 도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를 충족하

지 못한다.

- ⑤ <어떤 음영이 있는 도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를 충족하지 못한다.

16. ㉠과 ㉡를 통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믿음 편향은 논리적 규칙 적용 이전에 일어난다.  
⇒ ㉠은 믿을 만하면 논리적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믿을 만하지 않으면 논리적 규칙을 적용한다고 한다. 또한 ㉡는 전제의 논리적 복잡성이 믿음 편향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논리적 규칙 적용이 믿음 편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 편향은 논리적 규칙 적용 이전에만 일어난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② 믿음 편향이 강할수록 개인의 합리성은 증가한다.  
⇒ ㉠과 ㉡를 통해 도출할 수 없는 내용이다.
- ③ 믿음 편향은 논리적 규칙 적용에 능숙할수록 자주 일어난다.  
⇒ ㉠과 ㉡를 통해 도출할 수 없는 내용이다.
- ④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복잡할수록 믿음 편향 효과가 발휘된다.  
⇒ ㉠에서 전제들의 논리적 복잡성이 믿음 편향 효과를 강화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상충되는 선지이다.
- ⑤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복잡할수록 논리적 규칙 적용이 수행되기 어렵다.  
⇒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복잡할수록 논리적 규칙 적용이 수행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과 ㉡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어떤 인류학자는 생물학자가 아니다.  
모든 생물학자들은 바둑 기사이다.  
따라서 어떤 인류학자는 바둑 기사가 아니다.

- ① 전제들을 <어떤 생물학자는 인류학자가 아니다.>와 <모든 바둑 기사는 생물학자이다.>로 환위할 경우 환위하기 전과 뜻이 달라지게 되겠군.  
⇒ 4문단에 따르면 <모든 A는 B이다.>를 <모든 B는 A이다.>로, <어떤 A는 B가 아니다.>를 <어떤 B는 A가 아니다.>로 환위하는 경우에는 비논리적 결과가 야기된다. 해당 선지가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② 심적 모형 이론은, 전제로부터 가능한 모형을 모두 구성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잘못 답할 가

- 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겠군.
- ⇒ 3문단에 따르면 심적 모형 이론에서 모형을 모두 구성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삼단 논증에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한다. <보기>에 제시된 삼단 논증은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보기 어렵다.
- ③ 분위기 이론은, 전제에서 특칭과 부정이 사용되었으므로 이것에 영향을 받아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겠군.
- ⇒ 2문단에 따르면 분위기 이론에서 사람들은 하나라도 특칭이면 특칭 결론을, 하나라도 부정문이면 부정 결론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 전제가 특칭이며, 부정문이며, 결론 역시 특칭이며, 부정문이다. 분위기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결론에 대해 '반드시 도출된다'는 답변을 선호할 것이다.
- ④ 에번스는, 인류학자 중 적어도 한 명은 바둑 기사일 리 없다는 믿음 편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할 것이라고 설명하겠군.
- ⇒ 5문단에서 에번스는 사람들이 일단 결론이 자신의 믿음 체계와 정합적이어서 믿을 만하다고 평가하면 논리적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결론을 받아들인다고 보았다. 적어도 한 명은 바둑 기사일 리 없다는 생각은 '어떤 인류학자는 바둑 기사가 아니다.'라는 결론과 합치되므로 믿을 만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따라서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는 답변을 할 것이다.
- ⑤ 분위기 이론은, 첫 번째 전제의 특칭을 전칭으로, 두 번째 전제의 전칭을 특칭으로 바꾼다면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보기>의 논증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겠군.
- ⇒ 2문단에서 분위기 이론에 따르면 특칭은 전칭으로, 전칭은 특칭으로 바꾼다고 해도 바꾸기 전과 마찬가지로 전제에 특칭, 부정이 사용되어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하는 사람은 <보기>의 논증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한다.